설동일(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1])
1차 구술

1. **구술자**: 설동일
2. **면담자**: 박보영
3. **촬영자**: 권용협
4. **구술일자**: 2012년 7월 6일
5. **구술장소**: 부산 부산진구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사무실
6. **구술분량**: 03분 00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노동문제연구소 창립과 1988년 13대 총선 출마

구술자 : 팔칠(87)항쟁을 가지면서(거치면서) 대통령께서는 그 전에 물론 노동운동은 노동법률상담소[2]를 통해서 굉장히 노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많이 축적을 하셨어요. 실제 이제 노동법에 관해서는 사시에도, 사법시험에도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선택과목이고 그래서 노동법 전공한 교수가 없어가지고 변호사들이 없어서 대통령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거든요. 팔십오(85)년부터. 그런데 팔칠(87)항쟁이 본질적으로, 하여튼 노동조합 결성이 가장 두드러진 (계기였습니다). 노동법률상담소에서 상당 부분을 노동조합 활동 지원이나 또 노동조합 일상 활동 지원을 해주셨고, 쟁의를 도와주셨고 했는데 그 부분에 조금 더 한걸음 더 나아가서 본인이 하신 그런 노동법률 상담을 더 확대하자, 노동조합도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인권변호사 한 십(10)여 분을 설득해서 노동문제연구소를 팔팔(88)년에 창립합니다. 노동문제연구소를 창립하시면서 노동조합 고문 변호사단을, 한 십(10)여 분의 부산 지역의 인권변호사님들을 고문 변호사단을 구성을 하죠. 그래서 법률상담을 해주는 거죠. 조합 당 만(10,000)원에서 오만(50,000)원, 형식적으로 고문료를 책정했는데 그건 아무 것도

1) 2006년~2009년 재직
2) 1985년 중반 부산과 영남지역 내에서 노동문제 관련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자 노무현법률사무소 내에 설치한 노동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소. 국내 최초의 노동문제 관련 법률상담소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 변호사는 먼저 1982년부터 부산YMCA 시민중계실 법률상담 활동과 MBC 라디오 법률상담 코너 객원 출연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률상담소는 1987년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기 동안 국민운동본부(부산국본) 산하 노동문제특별대책위원회로 맥을 이었으며, 1988년에는 본격적인 연구활동단체 '노동문제연구소'로 출범했다. 소장인 노무현 변호사의 국회 진출 후 인적 구성을 조정하여 '부산노동단체협의회'로 새롭게 출발했다. 한편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법률사무소 내의 노동법률상담소는 부산 동부지원을 비롯하여 창원, 울산 등 전국 연결망을 가지고 점차 확산되었다.

아니고요. 그런 활동들을 쭉 하신 부분이 이제 아주 그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애정도 많고 민주화운동의 축이라는데 대해서 많은 그런 신념과 실천이 있었던 거고.

또 한축은 정치를 바꿔야 된다, 시민사회운동이 자기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세울려면 정치를 바꿔야 된다는 신념이 있어서 그걸 구체화 한 것이 팔십팔(88)년 동구 국회의원 출마였습니다. 법의 해석 문제보다 입법 문제가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 그 신념의 실천은 결국은 이제 상임위도 노동위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맨 처음하신 것이 노동법 개정입니다. 아주 훌륭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쟁의조정법을 만들었죠. 노무현 그, 그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했으며는 아주 선진적인 우리 노동삼(3)법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죠. 그 후에 국회의원 하시면서도 여러 노동조합 쟁의, 파업현장을 또 가시고 설득도 하시고 중재도 하시고 또 때로는 지원도 하시는 활동은 다 익히 아는 거고요. 그렇게 두 가지 축에서 그 분의 이후 행보를 좀 해오셨고.

그 노동문제연구소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에 입문하시고, 국회의원에 입문하신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좀 꾸려나가지를 못하고 그걸 노동단, 부산지역 그 부산노동단체협의회 쪽에서 그 사업을 올곧이 이어받아서 계속해온 거죠.

■ 구술자 주요이력

1956. 부산 출생

1975.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입학

1981. 부림사건으로 구속

2002. 부산민주공원 관장

200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

2010. - 노무현재단부산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2012년 현재)

2011. 민주통합당 부산시당위원장

혁신과 통합 부산대표(2012년 현재)

1981년 부림사건 피해자로 노무현 변호사를 처음 만났다. 노 대통령이 1995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 기획단장을 맡았다. 2002년 부산민주공원 관장, 2006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2012년 현재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